



한발 앞선 경쟁력을 키우는 '수원시지부'

# 기술발전과 마케팅 전략의 중심축

수도 서울의 관문인 수원은 새로운 기술과 유행이 발 빠르게 전해진 덕분에 앞선 경쟁력의 제과점이 많이 모여 있기로 유명하다. 새해를 맞아 창립 20주년을 맞은 수원시지부는 2006년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회원 제과점의 경쟁력 키우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글\_정술이 기자 · 사진\_전문식 · 사진 제공\_수원시지부

예로부터 서울의 남쪽 관문으로 여겨져 온 수원은 서울의 발달된 문물을 발빠르게 흡수하는 것은 물론 남쪽에서 들어오는 정보 또한 서울보다 먼저 접할 수 있었기에 서울 못지않은 영화를 누려 왔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수원시지부는 이제 막 열기왕성한 '청년기'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협회의 기둥을 세우고 뼈와 살을 붙였다면 이제는 경기도지회의 리더로서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각오다.

## 기술발전과 공동 마케팅 전략 개시

수원시지부는 다른 지회지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규모 있는 세미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많은 지회지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지난 1997년에 전격적으로 완공된 세미나실은 25평 남짓한 공간

에 오븐과 냉장·냉동 시설, 반사 거울, 조리도구 등의 시설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어느 재료업체나 제과관련 학원의 세미나실 못지않다.

최근 수원시지부는 재료업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세미나를 '협회'로 단일 창구화하면서 협회와 회원들 사이의 거리를 한층 좁혔다. 수원시지부는 지난해에만 빼빼로데이, 발렌타인데이 등 5번의 세미나를 공식적으로 주관했는데 적게는 40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넘는 회원이 참가하는 등 언제나 기술개발의 열기로 무척 뜨겁다. 특히 빼빼로데이 세미나는 실용적인 아이디어 제품을 소개해 매출에 큰 도움이 됐다는 회원들의 찬사가 줄을 이었다. 매달 열리는 이사회 때 세미나에 대한 피드백이 함께 진행돼 회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수원시지부는 품목이나 강사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회원



1 수많은 상장과 트로피에서 수원시지부 임원들과 회원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엿볼 수 있다. 2 수원시지부의 자랑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해베로데이 세미나 풍경. 3 양경보 지부장은 행정 능력을 바탕으로 세미나실의 적극적인 운용, 앞선 업무 추진방식으로 수원시지부를 도약으로 이끌고 있다.

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수원시지부의 세미나는 회원들이 참가비를 따로 내고 참여하는 유료 세미나라는 점이 독특하다. 처음에는 '협회에서 돈을 받고 세미나를 연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회원들도 있었지만 유료세미나인 만큼 내용이 충실해지고 분위기도 한결 진지해져 오히려 참여율이 더 높아졌다. 세미나를 유료로 개최하면서 회원들은 내용면에서 알찬 세미나를 접하게 돼 만족스럽고 수원시지부는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게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2년째 수원시지부를 이끌고 있는 양경보 지부장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양경보 지부장은 "회원들이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려운 일들을 협회가 나서서 도움을 주고 특히 자영제과점에서 취약한 마케팅 부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협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세미나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사업이 또 있다. 지난해 화이트데이를 시작으로 특수절을 위한 현수막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는 것. 그동안 프랜차이즈 제과점들이 현수막과 포스터, 전단지 등을 본사로부터 공급받아 이벤트데이 전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는 동안 자영제과점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수원시지부는 전문 업체에서 제작한 현수막 시안을 컬러로 축소 인쇄한 다음 각 회원업소에 배포해 각 회원업소가 원하는 시안을 선택·주문할 수 있게 했다. 공동구매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원 시내의 거의 모든 자영제과점에서 서로 같거나 비슷한 모양의 현수막을 걸게 되면서 브랜드 못지않은 공동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다.

수원시지부는 오래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처럼 회원들이 어려워하는 업무는 대항해 회원들의 칭찬이 자자했는데 이는 누구보다 변재욱 사무장의 숨은 공이 컸다. 수원시지부가 걸음마를 떼던 시절부터 15년여 동안 수원시지부와 함께 일한 변재욱 사무장은 꼼꼼하고 야무지게 지부 살림을 꾸려가기로 유명하다. 수원시지부 회원들은 변재욱 사무장을 오래 대하다 보니 '여동생' 같기도 하고 '조카' 같기도 하다며 가족 못지않은 애정을 드러냈다.

### '십시일반' 참여의 본보기

수원시지부는 새로운 도약의 출발선에 놓여 있다. 회원 수가 줄어들고 갈수록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한다'는 말을 실천이라도 하듯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숨은 저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부재료값 상승과 프랜차이즈, 인스��어 베이커리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많은 제과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에서 추진하는 모금 행사 등이 있을 때마다 작은 도움이나마 보태려는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 사회의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얼마 전 수원시지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마련한 케이크 나눔 행사에서 불우이웃에게 125개의 케이크를 전달했다. 해마다 이어져온 불우이웃돕기지만 올해는 유난히 뜻이 깊은 행사였다. 제과점 한 두 곳에서 대표로 제품을 협찬한 것이 아니라 90여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형편에 따라 하나 두개씩 제품을 내 125개의 케이크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은 구역장들과 구역장 출신으로 구성된 수원시지부 과우회의 활약 덕분이다. 협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이기 때문에 진정한 '서포터'로 거듭날 수 있었다. 수원 지역에도 수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기술과 친분을 교류할 수 있도록 협회 아래에 귀속시키지 않아서인지 오히려 조직 갈등도 없고 협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든든한 '협력' 관계를 지켜가고 있다고. 또 수원이 경기도의 행정 중심지인 것처럼 경기도지회는 수원시지부의 앞선 정책과 시도를 적극 지지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앞으로 수원시지부는 업무의 전산화를 한발 앞서 준비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작은 업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술발전 및 마케팅 부분에 대한 협회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보다 많은 업소들의 관심을 이끌어 '다함께 잘되는' 환경을 일구기 위해 수원시지부는 오늘도 비지땀을 흘린다. ☞